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7월 5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사랑이나 계산이나 >

로마서 8:31-35 / 새찬송가 15 (통일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1.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롬8:35)

사랑의 본질은 아끼지 않는 것 즉 값어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롬8:32).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산하거나 거래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어는 무관심이나 미움이 아니라 거래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입니다(고전13:5). 인간관계도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 식으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추악한 거래와 계산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무의식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2.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계산할 수 있는 상대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갈5:6). 계산하는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적인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갈3:3).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산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산합니다. 전적으로 믿으면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계산이란 믿음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에 대한 보상’을 따지는 것이 계산이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3.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지’를 계산하지 말고 또 바라지도 말고 그냥 주어야 합니다(눅

6:38).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10:7,8)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도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산 없는 사랑으로 서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마7:12).

주기보다 받기를 더 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멸로 이끕니다(행20:35).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소유를 보며 내가 돌려받을 것을 미리 계산하고 주는 것은 사람 즉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이란 영혼과 영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영혼들이 소유한 것들의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믿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다니’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살펴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